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Egino Weinert,  
전도여행의 보고를 받는  
예수님>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66,10-14ㄷ

제2독서: 갈라 6,14-18

복음: 루카 10,1-12.17-20

가톨릭 성가 입당: 63

봉헌: 444

성체: 179

파견: 450

### ◆ 화답송



(후렴) 온 세상 아, 하느님 께 환호 하 여 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짓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둘이 증거하는 하느님 나라”

성인 옆에 순교자 나고, 신심 깊은 부인 옆에 냉담한 남편이, 열심한 사제와 수도자 옆에는 빈자리가 있다. 개별적으로 만나고 전하는 하느님 나라는 아름다운듯하지만 그들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보면 하느님의 나라가 그리 매력적이지만은 않다.

루카 복음사가는 다른 복음사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외에 이민족을 의미하는 ‘일흔 둘’이라는 수의 제자를 파견하시는 모습을 소개하면서도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사가들과 일치한다. 둘씩 보내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는 심부름꾼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전달하거나 마술사처럼 그럴듯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만도 아니다. 제자는 복음을 몸소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군중들은 제자들의 얼굴표정, 그들의 말투, 둘이서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각자가 하는 일은 화려하지만 둘이 있을 땐 반목하거나 서로를 질투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어떠한 기적을 동반하더라도 별것 아닌 것이 된다. 반면 살아가는 모습에서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면 하느님의 말씀은 더 큰 신뢰를 얻게 된다.

복음은 각자의 화려한 말이나 기이한 행동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작은 사랑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임을 기억하자. 우리 부부가 증거 하는 복음, 우리 공동체가 증거 하는 복음은 어떠한가? ♣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1,850
● 감사헌금	\$ 300
● 합 계	\$ 2,150

❖ **교무금** :

김지예 이경수 민완준 이사라 김영빈 강호영  
정희자 손유경 강영옥 고은경 강건대 채봉석  
구달회 이서원 나혜경 이정중 조동균 이경철

❖ **감사헌금** : 김 이

❖ **꽃봉헌** :

◆ 미 사 봉 헌

● <b>연미사</b>	<b>봉헌</b>
이성범 안드레아 이태모, 이영우 이신옥 발렌티나 이강욱 원요한 요아킴, 김종목 리차드	<b>연령회</b> 이상홍 스테파노 윤석호 스테파노 채미재 마리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 <b>생미사</b>	<b>익명</b>
유기호 베네딕도 양미숙 마리아 가족 구 벨라뎃다 최병남 미카엘라 안영옥 분다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박재호 베네딕도, 박현자 엘리사벳 한지환 대건안드레아	선명희 노아 구 이시도로 김승범 프란치스코 성모회 성모회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신비로운 장미 Pr

떠나라  
낮선 곳으로  
... <중략>  
떠나라  
그대 온갖 추억과 사전을 버리고  
빈주먹조차 버리고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다 떠나라  
- 낮선 곳, 고은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7월 7일	주세정 레이첼	김호겸 아우구스티노	정유진 콘솔시아	한채희 로사	진달래 아가타	이경자(벨) 황인자	한창희 황예슬	유기호 김영숙 이지훈 이지연 민덕미 장혜윤 이정현 진문자
7월 14일	권순재 요한레오나르도	원준성 프란치스코	박시현 마리아	이미진 그레이스	김예슬 아네스	김영건 여다원	오윤서 김하나	민완준 유정옥 김은희 백승훈 김영숙 김승애 홍민철 조리디아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포**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대한인쇄  
T. 212. 971. 0212 / 268. 2776  
KO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정 기 모 입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오늘, 마봉한(안토니오), 마정애(클라라)부부가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울뜨레아가 11시,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학부모회가 11시, 교육관 3호실에서 있습니다.

➢ 양업회가 다음 주일(7/14) 야외행사를 합니다.  
미사 후 출발하며 장소는 Central Park입니다.

◆ 공 지 사 항

➢ 9월 확대회의 안내

대상 : 사목위원, 단체장

일시 : 9월 29일(주일) 11시, 교육관 3층 5호실

➢ 미국본당 175주년 기념행사

St. Francis 성당의 175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책자 편찬에 교우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칼라 광고> : 전면광고 \$500 / 1/2 \$300 / 1/4 \$200

<기부자 리스트> : 개인 혹은 가족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실어드립니다(\$50). 2019년 8월 1일 마감.  
<https://stfrancisnyc.org/175th-anniversary-commemorative-book/>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7.1 에스텔 7.3 토마스 7.5 대건 안드레아 7.6 마리아고레피
- 7.8 라이문도 7.11 베네딕토 7.15 보나뎀푸라 7.20 엘리야
- 7.22 마리아 막달레나 7.23 비르지타 7.24 크리스티나
- 7.25 야고보 7.26 요아킴과 안나 7.29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 7.31 이냐시오

➢ 7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방학)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21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청년 성가대 성가대 단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청년 성가대 반주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과 함께 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stfrancisks@gmail.com)

➢ 2020년 부활절 세레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기간 : 2019년 9월 22일 ~ 2020년 4월 5일

세레 및 견진일 : 2020년 4월 11일(토)

일시 및 장소 : 매 주일 오전 10:50~12:10/교육관 5호실

문의 : 김 헬레스틴 수녀 347.834.5784

➢ 미동북부 성령 대회

일시 : 7월 20일(토) 9am~9pm, 21일(주일) 9am~5:30pm  
장소 : Felician University / 262 S.Main St.Lodi, NJ 07644  
참가비 : \$40(토요일 점심, 저녁 / 주일 점심 포함) / 모든 참가자분들께 대회 강의녹음 USB 1개 증정  
신청마감일 : 본당 성령기도회에 7월 14일(주일)까지  
문의 : 이은경 헬렌(917.921.9619)

➢ 제 30차 메주고리에 유스 페스티벌

기간 : 2019년 7월29일~8월7일(9박10일)  
참가경비 : \$980+항공료  
문의 : 박민재 아그네스(646.808.7322)

**“성경 맛들이기” - 아모스 • 호세아서**

**아모스 예언서**는 유대 문학 사상 최초의 예언서로 후대의 예언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아모스 예언자의 일대기**

아모스는, ‘주님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남 유다 땅 트코아에서 농장을 운영하다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갈라진 형제의 땅, 북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다. 예로보암 2세(기원전 786-746) 시절의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예식은 겉치레로 흘렀고, 빈민은 착취를 당하는 등 사회정의가 짓밟히고 있었다. 이때 아모스는 하느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외치면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 5,24)하고 촉구했다. 그로 인해 선동가로 몰려 추방당하는 수난을 겪었지만 그가 선포한 하느님의 계획은 되돌릴 수 없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정의의 예언자’ 또는 ‘멸망의 예언자’라 부른다.

**‘아모스’ 라는 성경 이름** : 예언자 아모스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붙였다. 분량이 적어서 소 예언서에 속한다. 12개의 소 예언서 중 호세아서와 함께 대표적인 책으로 꼽힌다.

**저자** : 아모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정신과 생각을 따라 덧붙여서 완성했다.

**집필 연대** : 아모스가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시기(기원전 760-750년)에 대부분 쓰였고, 그 후에 약간 손질해서 현재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

**집필 목적** : 주변 강대국의 세력이 약화된 관계로 전성기를 맞아 자기도취와 향락 속에 빠진 북이스라엘에게 곤닥칠 멸망에 대비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다. 극도의 사치와 부정을 일삼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무관심하며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느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

**호세아**는 12 소 예언서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이다. 방탕한 아내 고메르를 끝까지 사랑으로 구해냄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애절한 사랑을 선포한 사랑의 예언서이다.

**호세아 예언자의 일대기**

호세아는, ‘야훼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북부 이스라엘에서 예로보암 2세가 왕 노릇 하던 때(1,1)부터 므나헴, 프카흐야, 페카, 호세아(예언자 호세아와 동명이인) 왕이 교체되는 혼란의 시대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부패와 불의가 넘실되던 때였다. 아시리아와 이집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주체성 없는 외교정책으로 갈팡질팡하면서 하느님을 언제 알았냐는 듯 바알을 숭배했으며, 사제, 예언자들의 죄악과 무책임, 정치인들의 부패, 백성들의 부도덕성, 이로 인한 살인과 강도 등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은 다시 이들을 당신 품에 부르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빨리 회개할 것을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고메르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을 피우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아내를 다시 구해내면서 아내를 향한 그의 사랑은 물론, 하느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온몸으로 전했다. 사람들은 호세아 예언자를 ‘사랑의 예언자’라고 부른다.

**‘호세아’라는 성경 이름** : 예언자 호세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세아서의 저자** : 호세아.

**집필연대** : 많은 부분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 중반에 기록되었다. 그 이후 남 유다에서 편집되어 현재와 같은 꼴을 갖추게 되었다.

**집필목적** : 잦은 왕권교체와 주체성 없는 외교, 우상숭배와 온갖 부패를 일삼아 풍전등화의 시국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제껏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일깨우면서 하느님 백성의 신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로써 하루빨리 모든 부도덕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일깨우고 있다.